

##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개선안 공개, “인력 충원 대안 없는 인증 개혁은 폭탄 돌리기”

김윤 위원장 - 의료법상 인력기준 현실에 맞지 않아 재검토 필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 인증혁신에 반드시 병원 인력 증원 포함돼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안이 나와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을 겪으면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인증제도 혁신 TF를 구성했다. 그 결과가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의 핵심은 인력 충원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서비스 질 보장에 적절한 인력 확보는 기본이다. 그런데 현실은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인증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 때가 되면 많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고 있다"며 "인력 증원 없는 혁신은 한 때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F가 제시한 인증제도 혁신방안은 ▲인증 참여 활성화 ▲인증 결과 환류 강화 ▲사후관리 강화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단계별 인증제 도입과 인센티브 확대, 분야별 인증 도입이다. 지금과 다른 점은 인증 단계를 나눈 것이다. 인증 입문을 1단계로 신설하고, 현행 인증을 2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병원들이 관심을 보일만 한 것은 인센티브 확대와 분야별 인증일 듯하다.

김 위원장은 "법적 인력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병원급은 인증 관련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종합병원급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인증 단계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기존 수가에 가산해 지급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위원장은 복지부, 병원, 간호계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눈을 감았고, 병원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 또 병원은 인증 시기에만 대응하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했고, 간호계는 간호 인력 부족을 외치면서도 정작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입말은 한다 15호 <후속편>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지키는 고대의료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지부는 지난 선전문물<할말은 한다 15호>를 통해 병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법,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11월 13일자 공문을 통하여 의료원 및 각 병원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지부는 법적 투쟁에 나서기 전 병원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산업법과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길 바라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시 지체 없이 법적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생리휴가, 강제연차부여 등에 대한 사항등도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11월 21

## 공동 행동,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특례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1월 21일(수) 13:00 - 14:05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인도

###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11월 21일(수) 15:00  
서울 도심(추후 공지)

### 보건의료노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4개 과제

- <1>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노동조건 개선
  - 올해안에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야간 교대제도 개선, 주52시간 상한제 시행
- <2> 의료민영화 저지
  - 의료민영화 법안저지, 제주영리병원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 <3> 노동법 개정
  - 노동시간 특례 폐지, 타임오프제 폐지, 산별교섭 제도화
- <4> 비정규직 정규직화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세부 합의